“불교는 ‘信解行證’… 군포교가 곧 수행”

〈신해행증〉



그대는 자비보살

유선재 단장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국 각지의 군법당에서 신심 하나로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군장병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다.

물심양면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싹틔우기 위해 묵묵히 그리고 아낌없이 정진하는 우리시대 부루나 존자들이다. 이들의 마음은 하나같다. 성별도 연령도 계층도 다르지만 군장병들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고, 무사히 제대해 사회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이다.

군장병들을 보살피는 부루나 존자들 중 가장 눈에 띄는 이가 있다. 바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회장 백효흠) 산하 군포교지원단을 이끌고 있는 유선재 단장이다.

유 단장이 이끄는 군포교지원단은 7월 20일 창립10주년을 맞았다. 30여 포교사가 20여개 부대서 연간 500여 회 법회를 이끌 만큼 이들은 아직도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유 단장이 있었다.

교복 맞추러 왔다 조계사서 맺은 불연

유선재 군포교지원단장이 처음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70년 서울 화신백화점에 교복을 구입하러 오면서 부터였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유 단장은 인근 조계사에 우연히 들렀고, 그때 법문을 처음 듣게 됐다.

“옛날에 친구 따라서 창신동 교회를 갔었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건 내 옷 아니다’ 는 생각을 하고 한참 시간이 지났어요. 당시 조계사에서 머뭇머뭇 둘러보고 있었는데 조계사 중고등학생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학생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하면 업, 인과, 인연, 중도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 정신의 옷에 딱 맞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학생회에 가입해 활동했습니다.”

법문을 통해 불연을 맺은 유 단장은 교회의 설교에서 느끼지 못한 인생의 가르침임을 직감했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고 중앙대에 입학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학생회 활동을 하게 됐다.

“당시 불교는 산중불교였고, 치마불교였습니다. 대학생 불자들 사이에서는 지성불자로서의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지금과 달리 대학진학을 많이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산중불교를 도시불교, 치마불교를 대중불교로 바꾸는 것이 지성불자의 사명이란 생각이 대불련 활동까지 이어졌습니다.”

유 단장은 불교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큰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대불련 중앙본부 조직위원장과 대학 학보사 기자로도 활동했다. 당시 전국 대불련 학생들을 화랑대회에 모집하는 등 전국을 다니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대불련 총동문회서 군포교 원력 발현

유 단장은 대기업에 취직해 곧바로 해외지사로 발령 나는 바람에 한동안 불교 활동과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지만 귀국 후 평소의 원력이 자연스럽게 무르익으면서 대불련 총동문회 활동을 하게 됐고, 이 활동 중 젊은 불자 육성, 특히 군장병 포교에 매진하게 됐다.

유 단장이 가장 안타깝게 느낀 점은 세월이 지나며 대학생 불자수가 감소하고 대학 불교학생회에 입회를 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미래불교 양성과 청년포교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됐습니다. 청년포교의 열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학생 포교냐 군장병 포교냐 였어요. 대학생 포교는 당시 많은 분들이 나선 상태였어요. 그런데 대불련 동문들 사이에서 군포교는 이른바 황무지와 같았죠. 이 부분은 꼭 필요하단 생각에 ‘남들이 하지 않는 군장병 포교에 열의를 갖고 힘써 봐야겠다’ 는 마음을 저절로 갖게 됐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일이었다. 2009년 7월 19일 이렇게 대불련 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이 출범했다. 명호근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등 원력이 모였다. 초대 단장은 충북대 68학번인 박호석 법사가 맡았으며 2011년부터 2대 단장으로 유 단장이 맡아 이끌었다.

“군장병 포교를 통해 대학생 포교 활성화도 이끌겠다는 원대한 목표가 있습니다. 7곳 법당에 20명의 포교사를 보내면서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단원이었지요.”

유 단장은 율곡대대 법당서 법사로 군포교 첫발을 디뎠다. 군포교지원단은 그동안 17곳 군법당에서 법사 38명이 월 37회의 법회를 지원하면서 약 2000여명의 병사들을 대상으로 전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포교를 불자사명으로
2009년 대불련 총동문회서
군포교지원단 발족에 기여
2011년부터 단장으로 이끌어

38명 법사, 17곳 법당 활약
법당불사, 장병상담도 진행
“군포교 네트워크 구성 과제”

군포교지원단 소속 지도법사들은 통상적인 일요법회에서 장병들에게 불법을 전하고 장병들의 신상 및 고충상담도 실시하며 장병들을 위한 간식도 지원했다. 특별법회로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를 비롯해 문화법회, 호국영령 천도법회 등 다양한 군포교 활동을 펼쳤다. 제대 장병중 복학생을 대상으로 대불련을 소개하고 복학 후 활동을 권장하는 역할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문제는 포교에 나선 어떤 법당은 물이 차고 부처님 불상이 관리도 안 되는 이른바 깡통법당이었습니다. 기자 분들이 오셔서 울기도 했어요. 법회를 시작했지만 안되겠다고 생각해서 법당 불사도 시작했습니다.”

군포교지원단 법사들은 대불련 동문들과 후원자 등 십시일반 원력을 모아 11보급대대 안국사 신축, 1사단 12연대 운천대대의 석불사 중창, 9사단 백마수색대대의 영축사 신축, 5포병여단 105대대 비룡호국사 중창, 2기갑여단의 충성사 중창, 933포대의 중창 불사 등을 이뤄냈다.

안타까운 점은 대부분의 지도법사들이 지원 없이 사실상 원력 하나에 의존해 군포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B2면에 계속

유선재 군포교지원단장은… 1970년 조계사에서 불교를 처음 접하고 1973년 중앙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대불련 활동에 매진했다. 2010년부터 대불련총동문회 군포교지원단 활동을 펼쳤으며 2011년 군포교지원단 2대단장으로 취임했다. 2013년 목동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회장, 2016년 대불련총동문회 고문을 역임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불련총동문회 수석부회장으로 있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5〉

B5 문화
장명확 ‘돌 · 부처를 만나다’ 展

B6 학술
만해 · 무산, 계보학으로 살피다